

보도자료

2010년 3월 12 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 장
(750-2770)

개인정보보호윤리과 기밀의 문서

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방통위 대응방안

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,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사업자에 대한 홍보·계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.

[붙임1]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방통위 대응방안

[붙임2] 개인정보침해 공동대응 핫라인 운영체계

[붙임3] '09년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실적

[붙임1]

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방통위 대응방안

□ 유출사건 개요

- '10. 3. 9일, 대전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회원들의 ID/비밀번호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650만개를 판매하여,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피의자 1명 검거
- '10. 3.11일, 인천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해킹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2천만건을 확보하여, 1억5천만원에 판매한 피의자 3명을 검거
- ☞ 대전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확인한 유출 개인정보가 서로 동일한 부분이 많아 중국의 같은 해커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

□ 방통위 대책

- ① (현장조사)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,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
 - 단, 수사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우선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참조하여 방통위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추진
- ② (유출대응) 개인정보 유출사건 인지 즉시 「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」의 핫라인을 통하여 포털사, 홈쇼핑,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, SMS로 동 상황을 전파하였고

- 동일한 ID/PW에 의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패스워드(PW)를 변경토록 권고하도록 조치

③ (암호화 조치 강화) 해킹 등 외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,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시행('10.1.29)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점검 및 계도 강화

- (점검)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례에 관련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 이행 여부 등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강화

▶ 1차) 유·노출 의심 사업자에게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

▶ 2차) 자료 제출 불응시 현장조사 추진

※ '09년의 경우, 관련된 총 신고 건수는 8,451 건임 (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자료)

※ 현장 점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내 중앙전파관리소에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위한 기능을 부여 (정보통신망법시행령 및 방통위 직제 개정 추진)

- (계도) 기술적·관리적 해설서 발행, 워크샵,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행을 홍보

④ (해킹대응)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강화

- 무료 웹방화벽 보급 확대 및 악성코드 원격 점검 강화

▶ 탐지·예방 프로그램 보급 : 8,034건('09) → 9,200건('10)

▶ 웹취약점 점검 시스템(MC-Finder) 증설 : 20만개('09) → 100만개('10)

-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확대

▶ 원격 점검 서비스 : 1,260건 ('09) → 1,400건('10)

- ⑤ (캠페인) 개인정보침해 방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'10년 중 “아이핀(i-PIN)전환 및 주민등록번호 Zero 캠페인”, “패스워드 변경 캠페인” 등을 전개할 예정

※ '09년의 경우, “패스워드 변경 캠페인”으로 2,600만개의 패스워드를 바꾼바 있음

□ 대책 종합

-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적 의미에서 사업자에 대한 법적응을 엄격히 시행하며,
-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·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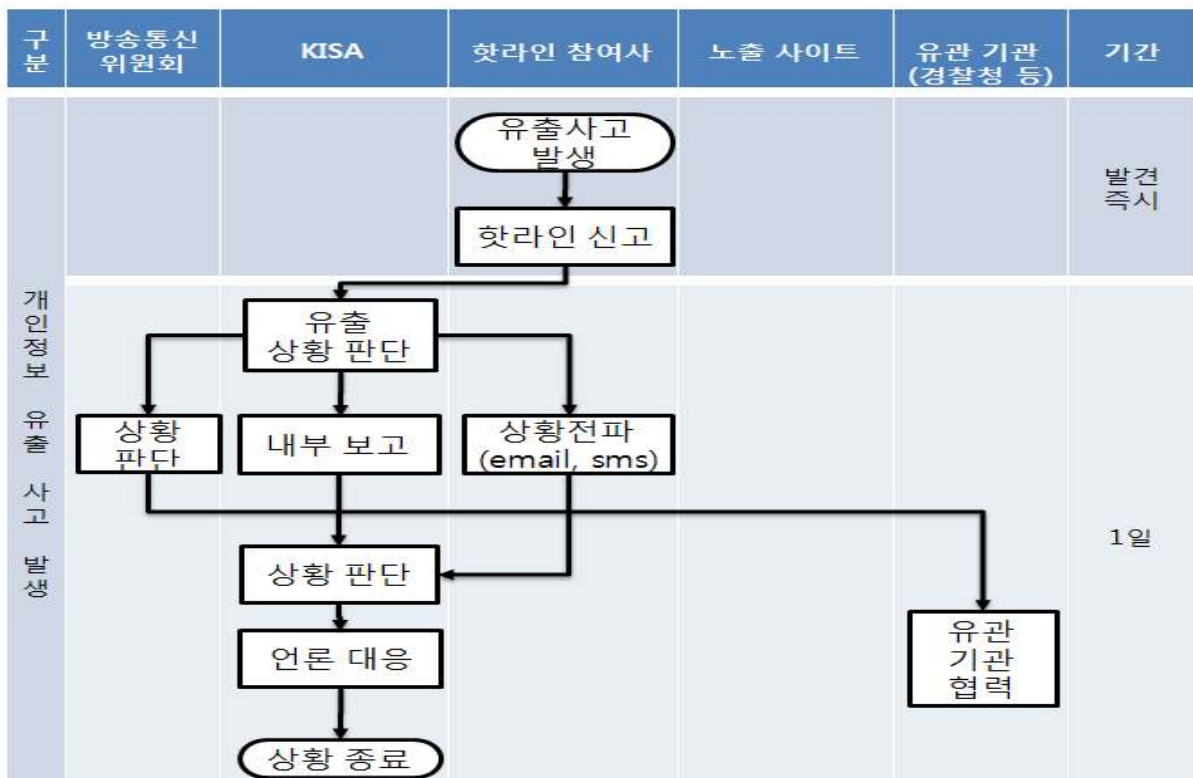
[붙임2]

〈개인정보침해 공동대응 핫라인 운영체계〉

□ 개요

-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 발생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제2, 제3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
- 포털, 홈쇼핑, 게임사 등 55개 사업자에게 사고내용과 조치사항을 이메일, SMS로 실시간 전송

□ 체계도



□ 참여사업자

- 포털사 : 네이버, 다음 등 11개사
- 홈쇼핑 : 옥션, G마켓 등 11개사
- 게임사 : 엔씨소프트, 넥슨 등 8개 사
- 호스팅사, 게임협회 등 25개사

[붙임3]

〈'09년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실적〉

1. 캠페인 개요

- (기간) 2009. 6. 1 ~ 6. 20 (20일간)
- (내용) ① 포털 등 14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“ID/PW 변경 캠페인”,
② “i-PIN 한글이름 공모” 이벤트 추진
- (참여 인원) 총 **128,722명**이 “2009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 홈페이지 방문
 - “2009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사업자의 “ID/PW 변경 캠페인” 화면으로 링크된 이용자 수 : **10,269명**
 - 캠페인 참여 14개 인터넷 기업 회원 중 PW 변경 수 : **2,629만명**
 - “i-PIN 한글이름 공모” 이벤트 참여자 수

한글이름 공모	플래쉬 게임	네티즌 평가	합 계
2,987명	4,085명	19,465명	26,537명

2. 캠페인 광고 및 홍보

- (지상파 광고) “2009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 공지 자막 방영(총 116회)
 - MBC: 16회, SBS: 28회, EBS: 72회
- (지하철 액자 광고) 캠페인 기간 중 서울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에 A형 액자 광고 각 200매(지하철 1량 당 1매)



- (신문광고 및 유관기관 협조 등) 방통위·KISA, 주요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(또는 공지사항) 게시 및 건물 내 홍보포스터 부착

※ 한국정보보호학회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KT문화재단 등

- (홍보포스터 부착) ① 전국 556개 지하철역 중 300여개를 선별, 역사 내 무료게시판 이용 ② “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” 대상 대학 및 수도권 주요 대학 캠퍼스(전국 117개 대학)
- (기타) 보도자료 배포(2회), “weekly 공감”에 기사 게재, 정책포털 “Korea.kr”, 방통위 블로그 “두루누리” 등을 통한 캠페인 홍보

3. 캠페인 추진 결과

- (i-PIN 한글이름 선정) 1차로 전체 공모작 2,802건 중 네티즌 평가와 방통위·KISA 추천으로 200개를 선별하고,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 14개 결정
- ID/PW 변경 캠페인 결과 (6월 1일~20일)
 - 캠페인 기간 중 16개 웹사이트에서 총 2600만건의 비밀번호를 변경
 - 캠페인 기간 중 i-PIN을 312건 신규 발급하고, 8,449건 인증